

10 여년 전 세르파 청년들에게 영어, 컴퓨터,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훈련센터를 세웠었습니다. 마침 그 당시 한국에 외국인 근로자로 가는 바람이 불고 있던 때여서 한국어반은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제 아내에게서 한국어를 배운 이들 중 약 30 여명 정도가 한국어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으로 일하러 나갔는데 경제적인 독립이 불가능한 네팔에서 그야말로 다들 부러워 하는 '코리언 드림'을 이룰 수 있는 기쁨이 마련된 된 것이지요.



그로부터 10 년이  
흘러다시 고향  
네팔로돌아가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겼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왕디 세르파 형제 (사진: 아내의 오른쪽)가 지난 주간 저희 부부를 안산에 있는 세르파 식당에 초청했습니다. 제 아내에게서 한국어를 함께 배운 다른 친구들도 초청해 식사를 대접해주었습니다.

첫 5 년 동안 번 돈으로 카트만두에 조그마한 땅을 구입했고, 다시 5 년을 벌여 이제 돌아가면 그 땅에 집을 지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마침 저희가 한국에 나와 있어서 그를 교회로 데려갔던 적이 있었지만 아직 믿음을 갖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왕디는 10 년 전 한국어 시험에 합격한 것을 알자마자 너무 기쁜 나머지 새벽 이른 시간인데도 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합격소식을 알려준 첫 제자입니다. 예의 바르고 감사할 줄 아는 기본 자질이 있어 한국에서 일하면서도 상사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네팔로 돌아가 집도 짓고, 가족들과 예수님을 꼭 믿으면 좋겠다고 세르파교회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한국에 머무는 기간 동안 지비티 본부에서 부탁받은 학술 법인체 설립 준비를 위해 거의 모든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있을 지비티 이사회에 그동안 되어진 일의 중간보고를 하고 나면 3 월부터는 구체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백신을 맞고 네팔로 들어오는게 좋겠다는 네팔선교부의 권유를 받고 있어서 네팔로 돌아가는 날짜가 조금 더 지연될 듯 합니다. 과거에 제가 결핵을 두 번 앓았고 또 기저질환인 만성기관지염이 있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스케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이상룡, 이해련 드림(010-7236-7458, 010-2027-7458)